

2野 “협치 종말” 경고속 청와대 거부권 카드 만지작

‘상시 청문회법’ 대처 심화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측면 지원 속에 청와대가 거부권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거부권 행사시 ‘협치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24일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 청문회를 한다는 데 그것을 행정마비라고 하는 발상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마비되고 민간까지 어렵다는 선동을 하면서 정부 인사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며 “새누리당이 할 일은 못 하고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것은 국회를 망치게 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두 야당은 만약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이 될 경우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와 현 정권의 잔여 임기 동안에 협치(協治) 분위기가 훼손될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위헌 가능성 등 문제점을 제기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법률안 재의 요구)를 위한 길트기에 나섰다.

상임위 차원에서 모든 현안에 대해 청문회가 가능하게 한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것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9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로 끝남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을 20대에서 재의하는 것

이상호 “행정마비 발상 말도 안돼”

박지원 “거부권 건의 국회 망치는 일”

새누리 “위헌성 크다” 여론몰이

당정,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검토

은 위법이어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이 15일 내에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폐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 기간 내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정부로 송부된 만큼 박 대통령은 다음 달 7일까지 법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프랑스 순방 출국을 하루 앞둔 24일까지도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분위기다.

다만, 야당의 반대와 예상되는 파장을 고려해 당분간 여러가지 대안을 저울질하며 면밀한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헌심판 등의 대안이 적절치 않다면 결국 거부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슨 얘기 나눴을까 23일 오후(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계 인도지원 정상회의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상시 청문회법’ 운명은?

새누리 “자동폐기” 야당 “20대 국회 재의결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처리 절차가 주목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3일 정부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이송 후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하거나,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와 가결되면 법률로 확정된다.

문제는 이 법안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점이다. 오는 29일 19대 국회는 문을 닫고, 이튿날 20대 국회가 문을 연다. 박 대통령이 그 전에 공포 또는 재의를 요구하거나, 재의를 요구 받은 19대 국회가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표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20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재의를 요구해도 20대 국회가

이를 표결 처리할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당장 국회 사무처는 범의 검토에 착수했다. 사무처에 제시된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박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의를 요구받은 20대 국회가 이를 표결에 부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에선 법률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의 폐기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 내 공포되지 않으면 ‘회기 불연속 원칙’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는 것이다.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것이다. 19대와 20대가 별개의 국회가 아닌데다 재의를 금지하는 조항도 없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반기문, 이번엔 대선 출마 언급할까

오늘 한국 방문... 정계개편론 맞물려 여야 모두 촉각

25일부터 시작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대권 주자들의 지지를 부진에 고심하는 새누리당으로서 ‘반기문 카드’를 대안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반 총장의 행보에 따라 야권의 대선 경쟁구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반 총장을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우선 정진석 원내대표, 니경원 국회 외교 통일위원장 등 여권 인사들은 반 총장의 첫 공식 일정이 25일 제주포럼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반 총장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대선 출마설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애매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 한국을 찾는 반 총장의 입에 여권이 주목하는 이유다.

새누리당에서는 총장권 의원을 중심으로 ‘반기문 대명론’이 새어나온다. 지금까지 대선이 영남과 호남의 대결구도라면 차려져 중원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야권도 반 총장의 이번 방문에 덩달아 술렁이고 있다. 총선 이후 야권 잠룡들이 보폭을 넓히고 순환구전 더민주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한 제4차대 신당론이 부상하는 민감한 상황에서,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반 총장의 방한이 야권의 정계개편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야권은 겉으로는 반 총장 방한의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국회 의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 총장은) 총장을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반 총장은 검증은 견디기 어렵다.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100% 패배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반 총장은 제주포럼 참석을 위해 25일 오후 3시에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 오후 6시30분부터 흥영포 통일부장관 주최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열리는 제주포럼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26일 오전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제주포럼 개최식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26일 오후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 27일 밤 서울로 돌아온다.

28일에는 서울에 머물며 가족들과 조출한 모임을 갖고 건강검진을 받는 등 개인적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9일엔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다. 체류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당일부터 6월1일까지 일찍으로 경주화백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유엔 NGO 콘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대표이사 최금환

일본여행 이번이 기회다 !!!

카메라로 떠나는 일본 후쿠오카, 기타큐슈, 야마구치 출발일 5/29

- ▶ [한정특가/선착순 8명] 가족과 함께 떠나는 고급 별장 온천여행 4일 ₩299,000~
- ▶ [품격] 야마구치 전통로칸 온천 여행 4일 ₩539,000~
- ▶ [실속] 기타큐슈 온천여행 + 후쿠오카 1급 4일 ₩499,000~
- ▶ [부관혜리/특가] 북큐슈 미야지마, 이와쿠니 3박4일 ₩399,000~

항공으로 떠나는 기타큐슈, 후쿠오카 ▶ [특가] 에어부산으로 떠나는 기타큐슈 2박 3일 ₩599,000~

팬스타로 떠나는 오사카, 나라, 교토 ▶ [팬스타] 오사카, 나라, 교토 4박 5일 ₩599,000~

포함: 왕복 선박항공, 유류세, 부두세&공항세, 일정표상의 관광지 입장료, 식사, 가이드비
불포함: 여권 및 개인경비, 싱글차지, 광주-부산 국내 수송비

2016년 무안출발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 여행!! 출발일 7/28, 8/1, 8/6, 8/11

울란바토르, 테를지 ▶ 3박5일 ₩1,499,000 출발일: 7/28, 8/11
▶ 4박6일 ₩1,649,000 출발일: 8/1
▶ 4박6일 ₩1,599,000 출발일: 8/6
불포함: 싱글차지, 호텔(2인실)/케르(4인실)기준,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발맞사지 봉사료

민족의 영산 백두산!!
무안공항 - 연길 / 백두산 전세기 [FM-상해항공]
▶ 출발일 7/13 ~ 8/24(수, 토 출발)
▶ 북파·웅정·도문 4일 [실속] ₩1,140,000~ [품격] ₩1,250,000~
▶ 북파·서파(천지2회) 4일 [실속] ₩1,150,000~ [품격] ₩1,340,000~
▶ 북파·서파·웅정·도문 5일 [실속] ₩1,290,000~ [품격] ₩1,390,000~
불포함: 싱글차지, 개인경비 및 공항수송비

무안공항 - 연길 / 백두산 전세기 [TW-티웨이항공]
▶ 출발일 7/20~8/27(수, 토 출발)
▶ 북파·웅정·도문 4일 [실속] ₩1,040,000~ [품격] ₩1,140,000~
▶ 북파·서파(천지2회) 4일 [실속] ₩1,150,000~ [품격] ₩1,240,000~
▶ 북파·서파·웅정·도문 5일 [실속] ₩1,190,000~ [품격] ₩1,290,000~
불포함: 싱글차지, 개인경비 및 공항수송비

무안 ↔ 북해도(삿포로) 전세기 취항
▶ 출발일 7/31, 8/4, 8/8, 8/12
▶ 노보리베츠, 도야, 사코탄, 오타루, 삿포로 5일 ₩1,599,000~
※ 삿포로 1일 자유일정
▶ 노보리베츠, 도야, 사코탄, 오타루, 삿포로, 후라노, 비에이 5일 ₩1,699,000~
※ 3대 개요리 포함
▶ 노보리베츠, 도야, 오타루, 삿포로, 하코다테, 후라노 5일 ₩1,799,000~
※ 3대 개요리 포함
불포함: 개인경비, 기타매너팁, 기사&가이드 경비(₩4,000)/인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 ▶ 북경, 만리장성 4일 ₩650,000~ ※화요일 출발
- ▶ 북경, 고북수진 4일 ₩750,000~ ※화요일 출발
- ▶ 연산, 태항대협곡 5일 ₩1,150,000~ ※금요일 출발

불포함: 개인경비, 매너팁, 선택관광

인천에서 떠나는 중국의 숨은보석 산동성!!

- ▶ 산동성(치박, 제산, 제남) 4일 ₩699,000~
특전: 광주-인천 왕복 수송 포함!!!
불포함: 개인경비, 매너팁, 선택관광, 광주-인천 이동 중 식사
- ▶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9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식별관광, 석식2회
- ▶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8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식별관광, 석식2회
- ▶ 광주-울릉도 3일 ₩345,000~
- ▶ 목포-홍도, 흑산도 2일 ₩155,000~

직원 및 일본어 가이드 모집

- 모집인원 0명
- 외국어구사 능력자 우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운전면허 소지자
- 홈페이지 관리 유경험자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이틀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증금 가입(해외여행보험 5인만인),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전지역 ● 상시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 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보증금 가입 ● 예약시 계약서(해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봉사료, 선택관광, 각종 비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용에 따라 다름